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복지 지원

광주시 생활편익, 복지증진, 생활비 보조 3월 11일까지 접수 국토교통부 8월말까지 현장평가 등 거쳐 9월 최종 사업 선정

광주시가 각종 개발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해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사업, 환경·문화 공모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는 26일 “오는 3월 11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내년에 추진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계획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사업은 자

치구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신청하게 된다. 특히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문화(공모)사업은 누리길, 여가복지 등 여가공간을 확충해 구역 내 주민들과 인근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양 사업 모두 3월말까지 국토부로 신청

하며 오는 8월까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단이 현장평가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9월쯤 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또 직접 실생활에 밀접하게 지원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52만7622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2018년 기간 중 사용 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연1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가구별로 제출된 소득·재산(금융재산) 등을 공적기관에 조회 등 조사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망으로 연계·인수해 지급한다. 신청서 공고 및 접수는 2월말까지이며, 자격조회 및 결정은 4월, 증명서류 징구 및 지급은 5월~12월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처음 실시된 주민지원사업 평가에서 ‘서구 서창동 향도문화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 곳은 독립유공자의 집” 26일 문인 북구청장이 신안동의 고(故) 김중수 애국지사의 딸 김청(79·오른쪽 세번째)씨 집에서 김중수 광주지방보훈청장과 함께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리고 있다. 북구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 및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중이다.

광주시 5개 자치구와 함께 빈집 실태조사·정비 나서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사업비 4억7000만원을 5개 자치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자치구에 공·폐가 정비 예산을 지원하여 단순하게 철거하는 사업방식으로 총 600여동을 정비했다.

올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필요 사업비를 지원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추정되는 빈집에 대해 오는 5월까지 빈집 여부, 소유권 등 권리관계, 빈집 발생사유, 빈집 설계도서, 시설물(대지 포함)의 안전상태 및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자 의견 수렴 등을 전수조사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관내 빈집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국내외 빈집 활용 사례연구, 지역적 특화요소 등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구축된 빈집 정보시스템에 이를 게재한 후 소유자 동의를 거쳐 시, 자치구 및 공기업 등에서 도시재생 또는 공공사업 등에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우현 시 도시정비과장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장기간 방치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국감정원과 빈집정보시스템 무상 사용 등내용으로 하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성냥갑 아파트 탈피... ‘광주다운’ 디자인 만든다

광주시·건설협회·건축사회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협약 7월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광주시내 곳곳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외관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획일적이고 병풍화된 광주지역 공동주택 디자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가 건설업체, 건축사협회 등과 ‘광주다운’ 공동주택 디자인 및 안전성 향상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5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과 광주지역 공동주택의 디자인과 안전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지역 공동주택 디자인의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광주다운 공동주택 디자인을 개발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공동주택 조성을 통해 시민의 주거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참여 협약기관들은 ▲광주다운 디자인과 안전 방안이 적용된 공동주택 조성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주택건설사업의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참여기관의 상호 변역을 위한 기타 정책사업의 발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다운을 담은 디자인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혁신적 마인드가 필요하며 특히 주거공간이 시민들의 삶의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주택보급률은 105.3%에 달하며 아파트 비율은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65.3%에 이르고 있다.

획일적인 디자인의 고층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고밀화에 따른 일조·조망 분쟁 등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그동안 차별화된 디자인과 부대시설을 통한 주거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과 안전향상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7월까지 공동주택 디자인과 안전향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감염병협의체 간담회...세계수영대회 지원방안 논의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140여일 앞두고 전남대·조선대병원 등 민간의료기관과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 등 감염병 전문가들로 구성된 호남권감염병협의체 간담회를 연다.

27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체결된 호남권보건환경연구원 다자간업무협약 내용 중 국제행사개최 시 감염병 검사분야 업무협력의 일환이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한 감염병 검사분야 기관별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숙박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예방적 검사 협조 요청 및 감염병 검사에 필요한 고가의 검

사시약 공동구매 등이 논의된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노로바이러스 집단환자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사례도 발표한다.

이 밖에 대화기간 해외유입·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전남지역에 도착된 병원성브리오균 특성, 진단기에 의한 발열성질 환 분포 등 최근 연구동향에 대한 주제발표도 곁들여진다.

조영관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5년 메르스사태 극복으로 U대회를 성공 대회로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늘 이용섭 광주시장과 북구민 대화

광주시와 북구가 시·구정 현안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북구는 “27일 광주시와 북구의 소통·협력 강화로 북구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2019 이용섭 광주시장과 북구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자리는 이용섭 시장과 문인 북구청장의 현장방문, 구정 주요현안 공유, 시정설명 및 북구민과의 대화, 광주형 일자리 성공 환경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본촌산단을 청년친화형산단으로 탈바꿈 시키고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의 북구 건립을 건의하고 이 시장과 추천부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또 북구 예산 중 50%에 달하는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 열악한 재정여건에 대해 설명하고 시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광주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44만명)가 거주하고 생활체육 인구가 10만명에 달하지만 국제 규모의 체육시설, 생활체육관 등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 첨단2산업 체육공원에 북구종합체육관 건립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이번 이용섭 시장 방문 때 북구청 광장에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드론을 띄워 공공분야 활용 시범사례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신축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레스토랑 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